

# “의천스님 中 관음원 재건”

## 효탄스님,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 공개 의천스님 행적 374자 송설체로 기록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이 1090년 전란으로 폐허가 된 보타나가산 관음원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효탄(동국대 연구교수·고려사 전공) 스님은 26일 국내 처음으로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를 공개하고,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보타나가산 관음원에 얽힌 의천 스님의 영험기(靈驗記)를 소개했다. 의천 스님이 1090년 상인의 배를 타고 출현히 송나라로 떠나, 14개월간 강소성과 절강성의 여러 사찰을 방문하며 불법을 탐구했다는 기록은 북한 영통사와 대구 삼봉사에 남아 있는 대각국사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묘지석 등의 금석문과 스님이 직접 편찬한 《대각국사문집》 등에 남아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는 중국에서의 의천 스님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또다른 사료로 주목받고 있다.

'관음원기...'는 1304년 중국 명주에 있는 보타나가산 관음원을 방문한 원나라 명필 조맹부(1264~1322)가 관음원 재건에 결정적 계기를 만든 의천 스님의 행적을 374자의 송설체로 기록한 글이다.

여기에는 "보타나가산이 있는 명주 지역에서 전란이 발발하면서 관음원의 '백의관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대종 스님들이 백의관음을 숨기고 관음원을 떠났다. 이후 관음원을 다시 찾은 스님들이 관음상을 찾았으나 허사로 끝났다. 그런데 의천 스님이 관음원 내 통지전 우물을 지나며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백의관음'을 되

찾고, 보타나가산의 대표적 관음도량으로 발전시켰다. 고려조에서도 관음원에 새로운 전각을 시주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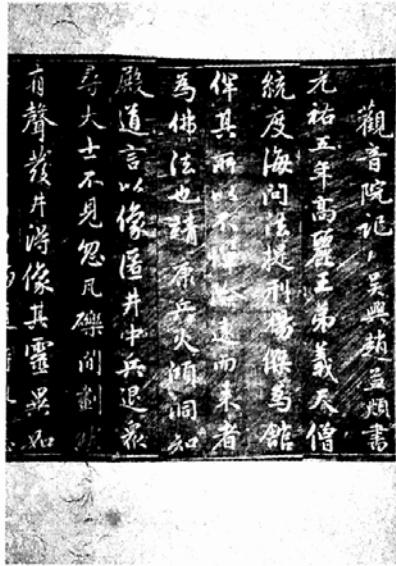
이에 대해 효탄 스님은 "불법을 탐구하기 위해 송나라를 찾았던 의천 스님이 오히려 전란으로 쓰러져 가는 중국의 불법을 일으켜 세웠다는 영험기이자, 관음원의 연기실화'라며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 정사에 나오는 인물이며, 특히 송나라 관리 양결(楊傑)은 《고려사》 제90권 열전 제5권 '대각국사 후'에서도 언급되고 있어,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관음원기...'는 또한 한·일 사학계에서 관음원을 놓고 '자국의 고대 무역 교두보'로 공방하고 있는 국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효탄스님

◇중국 보타나가산 관음원에 얽힌 의천스님의 행적이 기록된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 대덕 8년(1304년)에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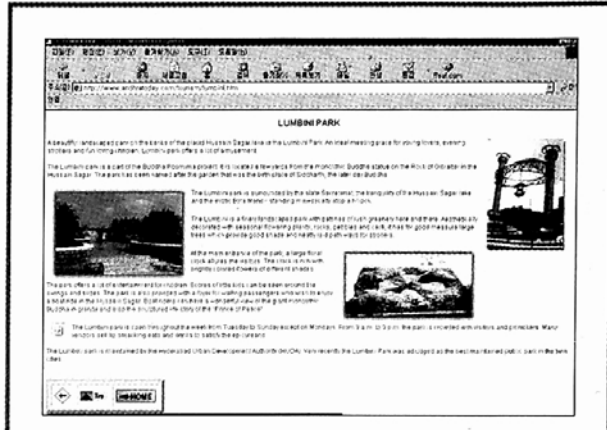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본의 헤이안 스님이 관음원을 창건했다는 《보견사명지(寶鏡四明志)》의 기록을 토대로 자국의 영향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관음원의 주변 경관이 강원도 낙산사 흥련암을 많이 닮았다고, 신라초(新羅條)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라 창건설'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관음원'에 얽힌 한·중·일 삼국의 고대교류사

연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효탄 스님은 "원래의 송설체는 해독이 까다로워 서지학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관음원기...'의 정확한 내용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토대로 (고려사) 등 다양한 역사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룸비니 공원

### 룸비니 현재 모습·유물 유적 '한눈에' 마야부인 살았던 집터 추정지 복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상 공간에서 이기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com)나 인포섹(infoseek.com)에서 검색어 'lumbini'를 입력하면 1백여 개의 홈페이지를 소개받을 수 있는데, 이중 네팔 정부에서 개설한 '룸비니 공원(Lumbini Park)'이 단연 백미다. 여기에는 '연못', '마야 사원', '경화의 대담' 등 룸비니의 현재 모습과 '야슈카 석주' '목욕지' '법당지' '탑지' 등 과거의 룸비니를 그려 볼 수 있는 유적·유물에 대한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독일의 고고학자 휘러가 찾아낸 '야슈카 석주'는 룸비니의 실존(實存)을 밝혔던 중요한 유물이다. 현장스님이 남긴 《대당서거기》의 기록을 좇아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동산을 찾아 나섰던 휘러는, 네팔어로 '룸비나 데이'라 불리는 이 지역의 언덕에서 문제의 '석주(石柱)'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이 곳에서는 일본·독일·스리랑카·태국 등의 고고학자들이 결성한 다국적 발굴단이 석주의 기록을 토대로 정밀 조사했는데, 법당지 한 곳, 승당지 네 곳, 탑지 여덟 곳, 목욕지 등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고 석주의 성지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현재에는 일본인 학자들이 룸비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특히 마야부인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를 찾아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훑고 있는 일본의 린소오(立正) 대학 고고학팀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굴에 힘입어 국제연합(U.N.)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세계평화센터(The Center for world Peace)'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세워지기까지는 67년 당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었던 미안마 출신 우탄트의 노력이 컸다. 룸비니 동산을 직접 참배하기도 했던 그는, "인류의 성지인 이곳을 평화의 전당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네팔의 왕실과 정부에 '룸비니 개발'을 제안, 네팔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고 바로 그해 10월 네팔 정부는 '세계평화의 성지-룸비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 국제연합에 제출, 12월에는 유엔조사단이 현지를 조사한 후 미국 뉴욕에서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로부터 룸비니는 불자들만의 성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성지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룸비니 공원'에서는 네팔 역사·인도 불교·마야부인 등으로 관련 항목을 분류, 다양한 연구논문·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41,577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미지 지도를 펼쳐놓고, 불교 관련 유물과 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http://www.andhratoday.com/tourism/lumbini.htm

## “조계사 대웅전에 항일의지 담았다”

### 안후상씨 '조계사 조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

조계종 직할사찰인 조계사 창건 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그리고 그 대웅전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서울 건지동 조계사의 사적과 그 의미를 조명한 이채로운 논문이 나와 화제다. 안후상(前 보조사·상연구원 간사) 씨의 '불교총본산 조계사 창건사'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불교의 1번지이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조계사지만, 지금까지 이 사찰의 사적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안 씨는 "조계사는 불교계를 행정력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에서 시작한 '총본산 건설운동'의 결과물이지만, 불교계는 창건 과정에서 오히려 '항일 의지'와 '대중 포교'의 깊

은 뜻을 담았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보천교 십일전(十一殿)을 대웅전으로 삼았고 또 '총본산'의 이름을 태고사로 했다는 것을 꼽았다.

보천교는 일제 강점기에 물산장려운동을 이끌 만큼 항일 의지가 강했던 종교단체다. 특히 이 단체의 십일전은 서울 남산에 세워졌던 거대한 '조선 신사'에 맞서 북 정을 대항하여 세웠던 전각으로, 일제의 만행을 민족 정신으로 이겨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십일전은 1937년 4월부터 1개월에 걸쳐 전북 정읍에서 태고사(현 조계사)로 옮겨졌고, 1938년 10월 25일 태고사 대웅전으로 거듭났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규모나 미적으로 당대 최고였던 전각을 태고사 대웅전으로 삼은 것은 일본

불교와는 다른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불교를 세우고, 또 대중 교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 씨는 또 총본산의 이름을 태고사로 한 것에 대해 "총본사 사명을 태고사로 한 것은 보우국사가 주축했던 북한산 태고사의 사적을 잇고 또 일본 불교와는 다른 법통을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씨의 논문은 8일 오후 1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조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조계사가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제시대 불교계 통일 운동과 조계사' (김광식), '조계사 대웅전의 예술사적 조명' (이강근), '조계사와 한국현대불교사' (박승희), '조계사의 발전 방향' (김영일)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02)732-4923

### 대구 팔공문화원 개원

대구시 동구 팔공산 일대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줄 동구 팔공문화원(원장 김원석)이 22일 문을 열었다. 옛 공산리동 사무소 자리에 개원된 팔공문화원은 대구시 문화재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팔공산 일대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해 보존하고 문화운동과 문화정책개발을 위한 팔공문화

### 학술단신

포럼을 운영한다. 또 문화의 집, 문화학교 운영과 함께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대구청년문화재단을 비롯, 팔공 문화제, 팔공미래 환경제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찰 조경연구' 7집 발간  
사찰조경연구소는 《사찰조경연구》 7집을 발간했다. '불국사의 건축과 조경'을 주제로 펴낸 이 논문집에는 '불국사 복원에 관한 고찰' (김봉건·국립문화재연구소), '관광사업의 틀에서 본 불국사의 건축적 보전' (한삼건·울산대), '불국사의 재조명을 위한 제안:경관해석의 관점에서' (정기호·성균관대), '불국사의 식물상과 관제계획에 관한 연구' (하재호·전주산업대) 등 논문 5편이 수록됐다. (0561)770-2501



◇ '황룡사 전시관' 조감도.

### '황룡사 전시관' 설계 당선작 확정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 터에 들어설 '황룡사 전시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됐다.

올해 1월부터 4월15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를 공모 해온 경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김상식)의 설계를 당선작으로, 우리건축사사무소(대표·김태조)의 설계를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하고, 당선작에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상금 1천만 원을 지급기로 했다.

당선작은 분황사 등 인근에 신재한 문화재를 비롯,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간구성이 우수하고 조경 및 발굴현장 유구에 대한 표현이 잘 돼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79억 2천 400만원의 건립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황룡사 전시관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오는 연말부터 황룡사 터 일부인 경주시 구황동 292-1일대 7천 48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천 799평 규모로 세워지게 된다. 준공 예정은 2002년. 황룡사 전시관이 건립되면 황룡사 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4만 5천여 점이 전시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환한 등을 달아주십시오.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명에 젖어 한 점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미혹의 어둠을 밝히는 세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책들을 선물해 보십시오. 세 개의 등불이 소중한 이의 가슴에 환한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재성/글·현관옥/사진·국판 208쪽·컬러 화보·값 7,500원

불경이 어렵고 무겁다면 페터 노이아르를 만나보십시오. 필른의 한복판에서 20여 년간 누더기 한 벌만 걸친 채 홀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무 밑의 성자. KBS 일요 스페셜 방영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그가 시인 맨발로 한국 땅을 밟으며 들려주는 경전 같은 이야기

이 책을 통해 거의 명목적으로 소유와 편리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

**거지성자**  
전재성 글·신국판 312쪽·값 7,500원

페터 노이아르. "술으로 가라, 새가 제 날개의 무게로만 날 듯이 소유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사는 거리의 수행자. 통사각 고금을 넘나드는 황홀한 가르침. 마음속에 잠자던 깨달음이 깨어난다.

선생은 새를 보면 새가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되고, 스님을 대하면 스님이 되었다. 긴 여운을 남겨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류지열/KBS 일요 스페셜 프로듀서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  
김영권 지음·신국판 256쪽·값 8,000원

20여 년간 한국 최고의 선사들로부터 법을 배우고 한국인 최초로 미얀마에서 출가하여 위빠싸나를 그리고 밀법 선사로부터 티벳 밀교 호흡을 전수 받은 저자가 심학을 기울여 저술한 선 수행 지침서. 그림과 문단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한다.

인류의 마지막 종교는 선이라는 말이 있다. 위빠싸나 수행은 인류의 진정한 의지가 될 것이며, 이 책이 그 초석이 될 것이다.  
성공 스님/무불선한장

선재 서점 구로구 유류동 34-3 전화: 0502-212-3450 전송: 0502-212-3451(0502)3451 (0502)3451